

제43권: 2007. 11. 22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 기 환 · 송 성 환

1. 최근의 배추·무 가격 강세와 원인 1
2. 배추·무 가격 상승에 따른 김치 수입 동향 3
3. 주요 채소류 김장철 가격 전망 4
4. 금년도 김장수요 변화와 대응책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박기환** 부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송성환 초청전문연구원 02-3299-4325 song9370@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최근의 배추·무 가격 강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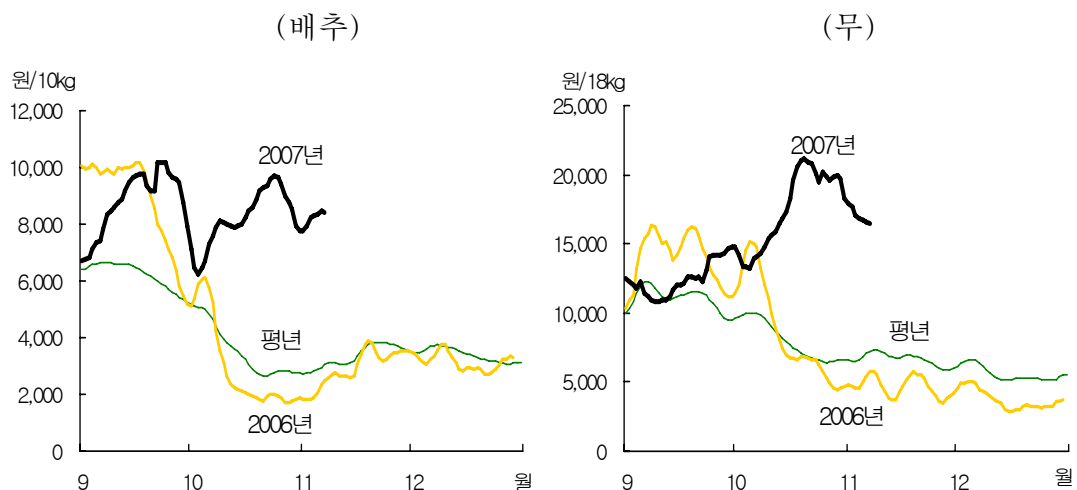
■ 최근 배추·무 가격 동향

배추 10월 상순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7,120원(중품 5,090원)에서 중순은 8,270원(중품 6,58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하순에는 9,240원(중품 7,35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 10월 평균도매가격은 8,150원(중품 6,290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2.9배나 높았으며, 평년보다도 1.7배 높았다.

배추 11월 상순 도매가격은 10kg당 7,580원(중품 6,01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강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도매가격은 10월 하순보다 18% 하락하였다.

그림 1. 최근의 배추·무 도매가격 추이



주: 2007년 11월은 1~10일까지이며,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2~2006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무 10월 상순 상품 도매가격은 18kg당 13,900원(중품 11,340원), 중순 18,560원(중품 16,410원), 하순에는 19,770원(중품 14,690원)으로 상승하였다.

- 10월 평균도매가격은 17,410원(중품 14,690원)으로 작년과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무 11월 상순 도매가격은 18kg당 16,450원(중품 12,670원)으로 작년과 평년에 비해 높은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가을무의 본격 출하로 도매가격은 10월 하순보다 17% 하락하였다.

배추·무 도매가격이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크게 상승하여 배추는 11월 상순 포기당 가격이 3,220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1,500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무도 개당 2,730원으로 작년 1,450원보다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무 가격 강세 원인

배추·무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고랭지2기작 배추·무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가을배추·무 재배면적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표 1.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배추	-18.8	-19.4	-19.7	-6.7	-15.2
무	-25.4	-15.4	-27.1	-26.5	-26.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확정치.

더욱이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식도 늦어져 10월 중순 이후 가을배추·무의 출하 공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최근과 같은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다.

표 2. 가을배추·무 11월 출하분 예상단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배추	-8.6	-8.1	-9.1	-12.3	-9.4
무	-8.6	-11.0	-9.1	-10.9	-9.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0일 지역모니터 조사치.

2. 배추·무 가격 상승에 따른 김치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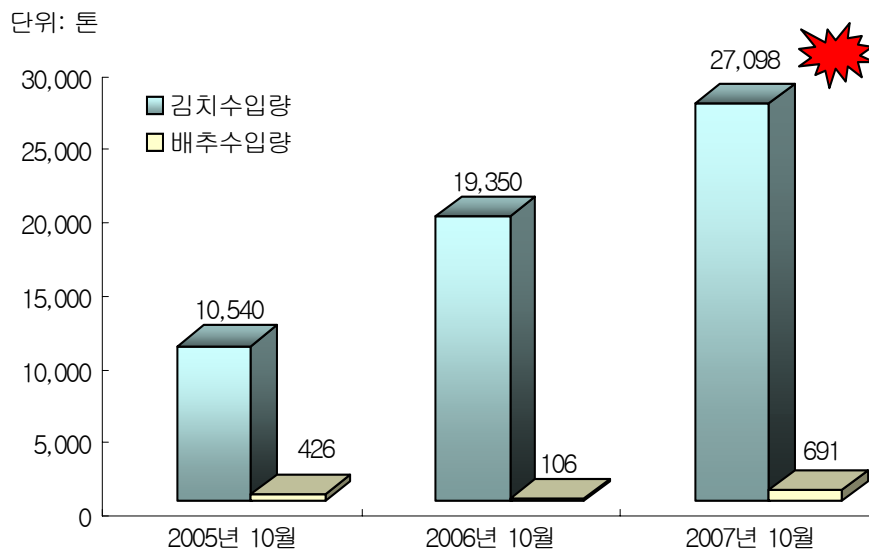
김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11만 1,459톤에서 2006년 17만 7,960톤으로 2005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에도 김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0월 현재 김치 수입량은 17만톤 내외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10월 국내 배추가격 강세로 27,100톤의 김치가 수입되어 2006년 19,350톤보다 40% 증가하였으며, 2005년(10,540톤)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특히, 2007년 9월 김치 수입량은 16,792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감소하였으나,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10월에는 9월보다 61% 증가하였다.

신선배추 수입은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여 2006년 10월 106톤에서 2007년에는 691톤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2. 김치 및 배추 10월 수입량 추이



자료: 관세청.

3. 주요 채소류 김장철 가격 전망

■ 김장철 배추·무 가격 전망

김장철인 11~12월의 배추 출하면적은 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12~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10월 20일 조사치에 의하면 단수도 작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장철 출하량은 20% 내외로 그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철 배추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작황이 회복되는 추세이므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출하가 상순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2월에는 농협 계약물량이 조기 방출될 계획이며, 월동배추도 가격 강세로 조기 출하될 가능성이 높아 출하조건은 11월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가을배추 11~12월 출하예상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11월	-11.7	-10.4	-13.5	-12.8	-12.1
12월	-	-13.3	-12.6	-13.0	-13.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김장철인 11~12월의 무 출하면적은 가을무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15~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수도 줄어(10월 20일 조사치)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 12월 출하량은 최근 작황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11월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가을무 11~12월 출하예상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11월	-19.4	-12.0	-17.0	-17.1	-16.5
12월	-	-12.0	-15.6	-18.3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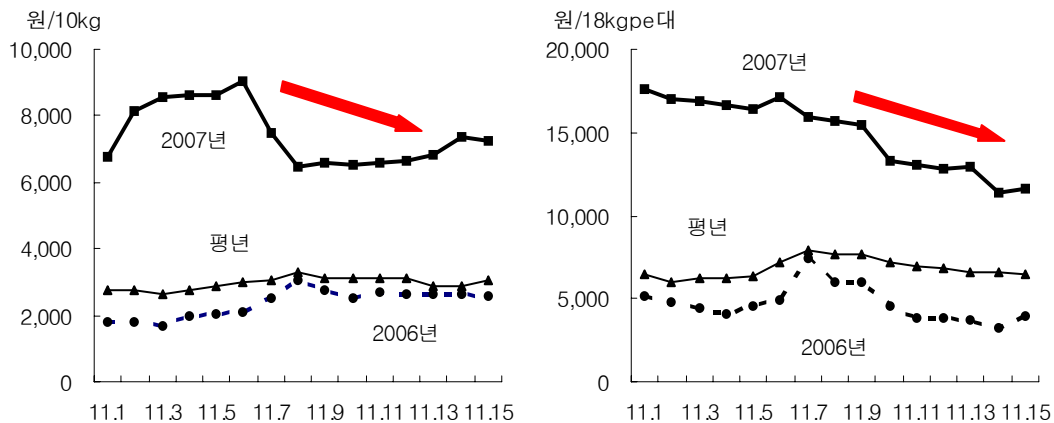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이와 같이 배추·무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출하 공백이 발생하였던 10월보다는 출하 조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부터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 전망이며, 현재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11월의 일별 배추·무 도매가격 추이

(배추)

(무)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배추 11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6,500~7,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에는 11월보다 하락한 5,500~6,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무 11월 상품 18kg당 도매가격은 10,000~13,000원 내외, 12월은 더 하락한 8,000~10,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김장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김장철 배추·무 도매가격 전망(상품 기준)

단위: 원

	단위	2006년		2007년 전망	
		11월	12월	11월	12월
배추	10kg	2,883	3,141	6,500~ 7,000	5,500~ 6,000
무	18kg	4,735	3,750	10,000~13,000	8,000~10,000

주: 전망 가격은 현재의 조건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김장철 양념채소류 가격 전망

김장철 주요 양념채소류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대파·쪽파의 12월 도매가격은 출하조건이 호전되면서 11월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김장철 주요 양념채소류 도매가격 전망(상품 기준)

단위: 원

	단위	2006년		2007년 전망	
		11월	12월	11월	12월
고추	600g	6,363	6,340	4,700~4,800	4,700
마늘	1kg	2,233	2,275	2,100~2,200	2,100~2,200
양파	1kg	1,140	1,317	500~550	550~600
대파	1kg	813	703	1,500	1,300~1,400
쪽파	1kg	1,702	1,973	2,200	1,700~1,800

주: 전망 가격은 현재의 조건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금년도 김장수요 변화와 대응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는 금년도 김장 의향 파악을 위해 소비자 패널(전국 8대 도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는 2007년 11월 5~8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메일 보유 소비자 패널 970세대 중 유효 응답 수는 732명으로 7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 달라진 금년도 김장패턴 및 수입산 김치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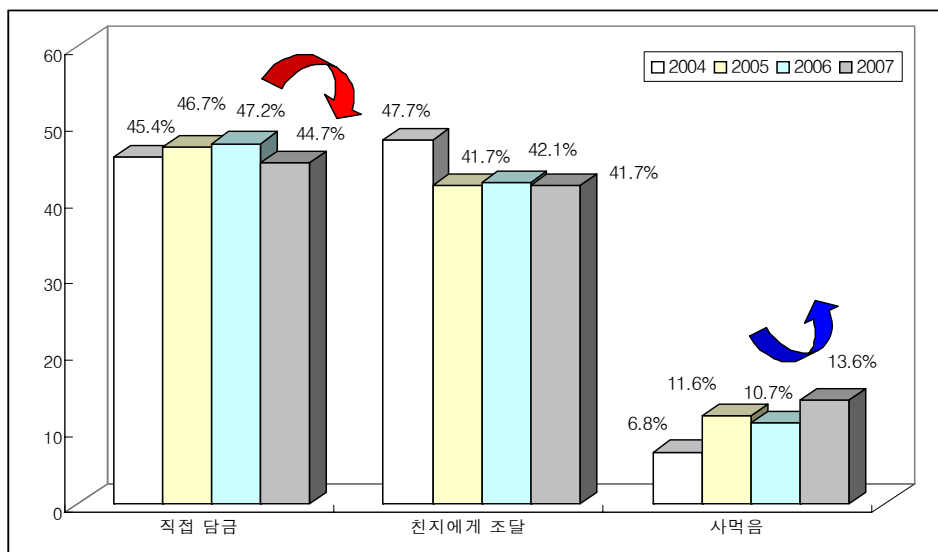
금년도 김장 의향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소비자 비율은 2004년 45.4%, 2005년 46.7%, 2006년 47.2%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담글 경우 맛이 좋고,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소비자 비율이 44.7%로 2006년에 비해 2.5%p 감소한 반면, 시판용 김치를 사먹겠다는 비율은 2006년 10.7%에서 13.6%로 2.9%p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이 직접 담그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금년 배추 값이 비싸기 때문(51.3%)’이며, 사먹는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고(35.7%)’, ‘담그는 것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20.1%)’이다.

그림 4.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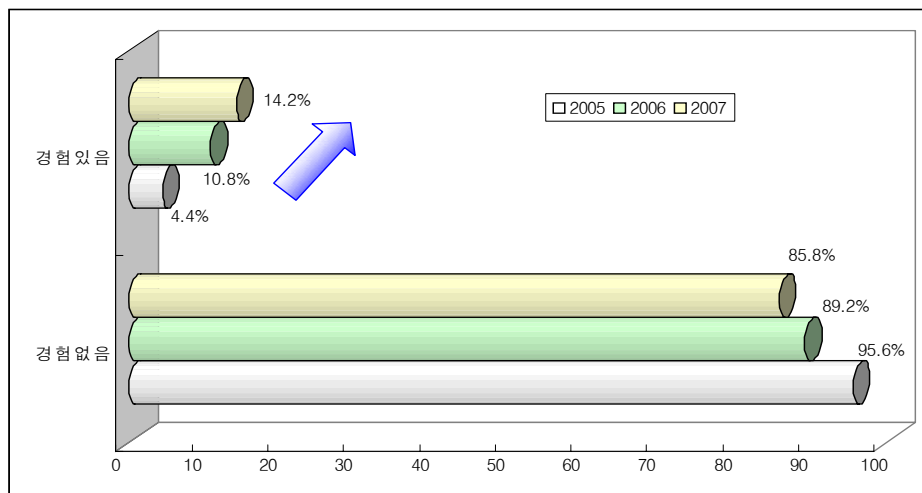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소비자의 경우 금년에 21.4포기(4인 가족 기준)를 담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5년 22.4포기, 2006년 23.4포기보다 각각 4.5%,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 금년도에는 배추·무 가격 강세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 세대 수가 줄겠으며, 김장의 포기 수도 감소하는 패턴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김치 구입 동향

중국산 김치인 줄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는 2005년 4.4%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10.8%, 2007년에는 14.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 소비자의 중국산 김치 구입 경험



소비자의 중국산 김치 주 구매처는 ‘인터넷 주문(31.3%)’, ‘대형 유통업체(20.2%)’, ‘집근처 상가(12.1%)’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산 김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중국산 김치의 맛이 국내산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맛있다’는 응답이 2006년 51.9%에서 2007년 56.0%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나 맛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년도 김장비용 추정

금년도 김장비용을 도매가격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김장비용은 배추 20포기 기준, 11~12월 평균 12만 1천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소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마진율 30% 적용) 김장비용은 15만 7천원 수준으로 작년 13만 8천원(농림부 발표자료)보다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의 배추·무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김장비용이 2005년의 15만 2천원과 비슷한 이유는 건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가격이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비용(소매가격 기준)을 월별로 살펴보면, 11월에는 16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2월은 채소류 가격의 안정 하향세로 11월보다 낮은 15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 김장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 대비 대응책

금년도 배추·무 가격 강세로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세대 수가 감소하고, 포기 수도 줄 것으로 조사되어 김장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배추·무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곧 국내 배추·무 소비 감소와 직결되며, 수입산 김치 증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국 재배농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 따라서 농가는 철저한 포장관리로 상품화율을 제고시키고, 보유물량을 가급적 신속히 유통시킴으로써 국내산 배추·무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 등 관계기관은 기 계약된 물량을 조기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며, 확보된 월동배추도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산지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여 소비자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김장채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농협 등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여 보다 싼 가격에 배추·무를 구입함으로써 김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며, 김장시기도 11월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전망되는 12월로 늦춘다면 비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 특히, 배추·무 가격 강세로 수입 김치가 급증하게 되고, 이들 김치가 부정 유통될 경우 소비자는 안전성 문제(2005년 기생충알 파문 등)에 노출되게 된다. 이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산으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 편이 바람직하다.

연일 언론 등을 통해 ‘금년은 김장김치 대란’이라거나 ‘금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집중 보도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 계속된 보도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이 판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농협과의 계약도 파기함으로써 원활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안정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배추·무 가격 강세는 저소득층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